

국내경기, 과거최대의 하락폭

~ 「동일본대지진」 후 수준까지 저하, 장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

(조사대상 2만 3,676사, 유효회답 1만 1,330사, 회답율 47.9%,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0년 3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6.2포인트 감소한 32.5로 6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2014년 4월(동 4.2포인트 감소)을 넘는 과거 최대의 하락폭으로 나타났다. 국내경기는 후퇴국면인 가운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확대되어 과거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향후는 해외동향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이 높아져, 후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조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전 10개 업계 51개 업종이 악화, 23개 업종에서 과거 최대의 하락폭이을 보이며 4개 업종에서 과거 최저를 기록하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개인소비와 관련된 업종의 체감경기가 크게 침체하였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부품 및 자재의 수입이 정체하여 공급망으로의 영향도 현저해졌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전국에 확대되어 『홋카이도』 『미나미칸토』 『호쿠리쿠』 등 전 10개 지역에서 악화, 5년 11개월 만에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모두에서 침체하였다. 난동(暖冬) 및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출자제 및 생산활동의 정체 등이 지역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모두 과거 최대의 하락폭이 되었다.

(월차조사 / 조사개시:2002년5월)

【전국의 경기 DI】



< 2020년 3월의 동향 : 후퇴국면 >

2020년 3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6.2포인트 감소한 32.5로 6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2014년 4월(동 4.2포인트 감소)을 넘는 과거 최대의 하락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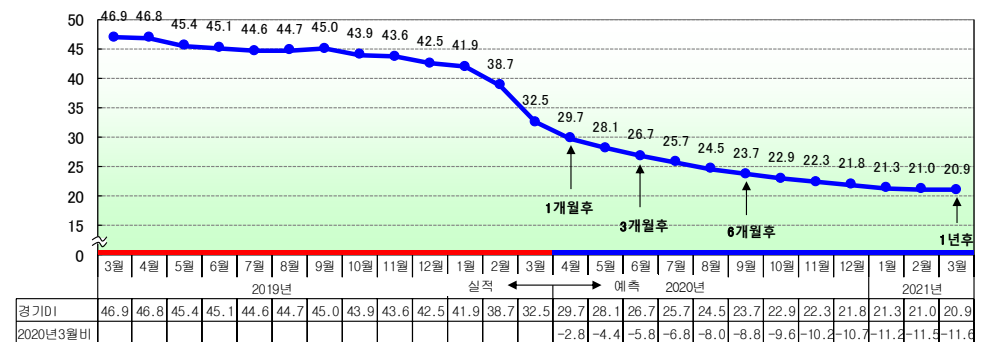
3월의 국내경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이 세계적인 확산을 보이는 가운데, 전업종·전규모·전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 감염 확대의 방지 대책으로 외출자제 및 이벤트 중지·연기, 방일객의 입국·행동제한 등으로 인하여 사람·물자·현금의 흐름이 정체되어 경제활동은 크게 제약되었다. 특히 여행객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료칸·호텔」의 체감경기는 과거 최저의 수준으로 침체하였다. 또한 계절수요의 감퇴 및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영향, 금융시장의 대폭 변동도 국내경기의 내림세 요인이 되었다.

국내경기는 후퇴국면인 가운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확대되어 과거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 향후의 전망 : 계속되는 후퇴 >

향후의 국내경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및 수입이 경기의 앞날을 좌우할 것이다. 해외의 회사·경제 활동의 정체 외에, 2021년으로 도쿄올림픽 연기 등, 불확실성의 상승이 우려요소가 되었다. 게다가 포인트 환원사업 종료 등 가계부담 증가와 함께 기업수익의 악화 등은 경기의 누름돌이 될 것이다. 또한 부품공급 두절로 인한 공급망의 단절에서 복구·재편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의 보정예산집행 및 5G(제5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의 본격화, 생산의 국내회귀 등은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는 해외동향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이 높아져 후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